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뜻을 모은 교계, 사회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제2차 모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사랑의 쌀 현재까지 2만 4천불 모금돼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제 5차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2차 모금 전달식이 열렸다.
 6일 오후에 남가주교협(회장 박효우 목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금 전달식에는 LA한인회, 안디옥장로교회, 미주베델교회, 월드타운교회, 웨이스 기독교대학, 풍성한교회, 미주목자교회, 종교평화협의회(전주교, 성공회, 고려사) 등에서 성금을 운동본부 측에

전달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을 주관하는 남가주교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금액이 1만 5130불이며 약정금액이 8900불 더 있어 총 금액은 2만 4030불이다.
 모금 전달식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며 "매년 사랑의 쌀을 나눠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받아간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LA총영사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한국일보, 중앙일보,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공동주최한다. 나눔 대상은 교회 및 사회봉사기관,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어려운 학생들, 개인신청자 등으로 총 1만 명에게 쌀 1만포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금 보낼 곳: 981 S. Western Ave. #401 Los Angeles, CA90006(Pay to: CKCSC-사랑의 쌀) >문의: 323-735-3000 토마스맹 기자



샌퍼난도밸리교협을 이끌어 갈 임원들이 총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샌퍼난도밸리교협 새 회장에 서종운 목사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이하 밸리교협) 2013년 정기총회가 3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2013년 부회장으로 활동한 서종운 목사가 2014년 신임회장으로, 총무로 활동한 김영일 목사가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부회장에 인준됐다.
 회장 서종운 목사(새생명중앙교회)는 "부족한 자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밸리교협은 △3월에 부활절연합 새벽예배 △5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 △7월에 북한포럼 및 통국기도회 등을 개최했다.
 총회가 열리는 중간에는 남가주교협의 박효우 회장, 박세현 사무총장,

홍성관 총무, 데이빗 전 홍보분과위원장이 방문해 인사하고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종운 목사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나가자"고 했다. 예배 사회는 이준우 목사(밸리한인커뮤니티교회), 기도는 광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축도는 고두선 목사(은퇴원로목사회 회장)가 각각 맡았다. 교협 회원 목회자들은 총회 후 탁구대회로 화합을 다졌다.
 한편, 밸리교협은 2013년 마지막 행사로 오는 15일(주일) 오후 5시에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성탄축하 연합예배와 장학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거룩한 세대 세우는 <Higher Calling> 위한 후원의 밤

미주 한국대학생선교회(KCCC)가 매년 주최하는 차세대 컨퍼런스인 <Higher Calling>을 위한 모금 만찬이 최근 열렸다.
 이 자리에서 KCCC USA 대표 김동환 목사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 품에서는 교회를 다니지만 대학에 가면 약 75%가 교회를 떠난다. 우리는 우리 세대만이 아닌 미래의 인목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한 꿈과 비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gher Calling을 2주 정도 앞두고 열린 이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눈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다. 특히 이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통해 부흥의 불길기 다시 한 번 이 땅과 교회 위에 타오를 것을 기도했다.
 마지막 기도인도자였던 권태산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실제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집을 함께 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수많은 교회들이 남가주에 있지만 차세대 부흥을 슬로건으로만 내세우지 않고 정말 급박한 세대 변화 속에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Higher Calling 등록은 웹사이트

www.gohighercalling.org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213-389-5222, gohighercalling@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 대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샌디에고에 있는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며, 미국 교회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프랜시스 쉐, 데이브 기브스와 함께 동양선교회 박형은 목사, KCCC의 김동환 목사 등이 강사로 선다.
 한편, 이 대회에는 로봇다리의 주



지난해 열린 Higher Calling 컨퍼런스.

인공 김세진 군도 참석해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로 인해 두 다리와 한 쪽 손이 기형적이지만 장애인 수영선수가 되어 세계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며 큰 감동과 기쁨을 주고 있다. 김나래 기자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ASE CERTIFIED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4년도 신(편)입생모집

"세기의 중심에서, 신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갑니다.."

ats 1-20 발령

학사 (B.A.), 교역학 석사 (M.Div.) 과정

★ 온라인 강의 전격 개설

본교는 학점제로 운영되며, 총 98학점 중 48학점을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복 학 기 2014년 1월 27일 (월)
개 강 일 본교 홈페이지 (www.pts.edu) '입학 정보실' 참조
입학 및 등록 북미주 - T. (562)926.1023, Ext.300
 E-mail : office@pts.edu
 한국 - T. (010)6612.1165 (담당: 박정환 목사)

- 2014년 봄학기부터 **L.A.와 북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본교의 위성 캠퍼스 (Satellite Campus)가 있는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에서 **아간수업을 통해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2014년 봄학기부터 1.5세와 2세 신학생들을 위한 영어수업을 개설합니다.

본교는 미국 성서대학교협의회 (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 (ATS) 준회원인 동시에 해외한민족포럼 (KPCA)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본교에서 2년이상 수학 후 교역학사 (M.Div.)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 예정통합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KPCA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한국 예정통합과 미국장로 (PCUSA) 로 이명도 가능 합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 언어·문화 교육원 ESL 과정

★ ESL 과정 신입생 모집 1월13일 개강 (1월3일까지 신청 접수)

- F-1 비자 발급을 위한 1-20 정식 발급.
- 원어민 교수로만 모든 수업 진행.
- 담당 교수제를 통한 철저한 학습관리.
-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화 집중 향상.
- 자유로운 수업선택 : 주간 종합반, 아간 종합반, 주중 집중 종합반, 단과반 등으로 구성.

2014년 봄 학기 1월 13일 - 4월 25일 (지원 마감 1월 3일)
2014년 여름 학기 5월 12일 - 8월 22일 (지원 마감 5월 2일)
ESL 입학 문의 및 상담 Director : 강우중 교수 (E-mail : wjkang@pts.edu) T. (562)926.1023, Ext.309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현직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edu
 Tel. 1- (562) 926 - 1023 Fax. 1- (562) 926 - 1025
 ESL blog : http://blog.naver.com/pts_esl



베들레헴 크리스마스콘서트에 참가하는 "Everlasting Choir"의 출정감사예배가 성화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크리스마스 찬양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 울 성탄절에 열리는 "베들레헴 크리스마스콘서트"에 참가하는 'Everlasting Choir' 출정 감사예배가 8일 오후 5시에 성화장로교회에서 열렸다. PCMG(태평양연안선교회)가 주관해 모집한 'Everlasting Choir'는 40명으로 구성된 한인팀으로, 남가주를 중심으로 미주 각지에서 모여 이슬라

엘을 방문해 콘서트 및 순례지 교회 등지에서 총 12곡 이상 찬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기자단 3명 등 총 52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다. 이스라엘 순례단원들은 베들레헴 지역, 헤브론 지역, 사해 지역, 엠마오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등을 16일부터 28일까지 12박 13일에 걸쳐 방문

하며, 방문단 주관측은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5분 칼럼과 설교를 녹음 및 녹화해 CTS TV로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현영 목사(찬양단장)가 사회를, 전인철 목사가 축사를, 유승연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가 축도를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제 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연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15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이란 주제로 제 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지휘에 전종재 교수, 반주에 헬렌 박 씨가 참여한 다. 단장 이상기 목사는 "40여명의 단원이 이번 공연에 참가할 예정"이라

며 "다양한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니 행사 당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출연으로 헤세드남성중창단(세리토스장로교회)과 살롬권사찬양대(나성열린문교회)가 연주회에 참여한다. 문의: (310)938-4422(김사라 사모) 박창민 기자

홈리스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 다운타운서 열려

JL World Mission(예수사랑세계선교회) 주최로 제9회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음악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다운타운 글래디스파크(Gladys Park)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홈리스들에게 주최 측

에서 정성껏 준비한 500여 세트의 담요와 재킷이 전달돼 기쁨을 더했다. 선교회 대표 조병국 목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이 5기 의료선교사를 배출했다.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 의료선교사 5기생 수료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대표 박승부 장로)이 5기생 의료선교사를 배출했다. 7일 오후 5기 수료생 오원웅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와 2부 수료식이 거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엄기환 목사(미주 합동증경총회장)는 열왕기하 5:8-14절을 본문으로 "선교사의 길은 내안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며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말했다. 2부 수료식에서 박승부 대표가 지난 5개월 동안 8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박영곤 장로의 총 14명에게 각각 수료증을 전달했다.

한편, 의료선교사 육성재단은 6기생을 모집하고 있다. LA와 OC 지역에서 20주간에 걸쳐 수강생을 소수정예로 모집해 교육하며, 근육교정학, 체형교정학, 척추교정학, 영양물리학 등 이론과 실재를 통해 의료선교사로 양성한다. 문의) 213-381-7273, 213-605-2928 이인규 기자



벤츄라카운티교회연합회 성탄찬양예배가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벤츄라 교협 음악회 열려

지난 8일(주일) 5시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에서 벤츄라카운티교회연합회 성탄찬양예배가 열렸다. 이날 최상훈 목사(벤츄라감리교회)는 "마곳간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최 목사는 "마곳간의 의미는 겸손, 성결, 사모의 정신이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나눔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증거하였다. 이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마곳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

생의 의미를 아는 성도의 태도"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후 순서로 시미벨리한인교회, 카마리오한인교회, 욱스나드연합감리교회,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의 성가대가 아름다운 성탄 찬양을 불렀으며, 마지막 순서로 벤츄라감리교회가 "Everything"이라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선보여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벤츄라카운티교회연합회는 총 11개의 한인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김나래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팅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R.3590 Religious Exemption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CMM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단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미국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건강보험이나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 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의료비 혜택 내용	예방검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1 unit (1인)	\$ 175	\$ 135	\$ 80	\$ 40
2 units (2인)	\$ 325	\$ 260	\$ 160	\$ 80
3 units (3인 이상)	\$ 425	\$ 385	\$ 240	\$ 120
본인부담금 (1인 기준)	\$ 500 / Year	\$ 500 / Incident	\$ 1,000 / Incident	\$ 5,000 / Incident
질병당 의료비지원한도 (브라더스키퍼 가입)	unlimited	unlimited	질병당 최고 \$1,000,000	질병당 최고 \$1,000,000

전화 213-700-9212 문의 www.christianmutual.org

전국적으로 20만 크리스천 가정과 단체는 건강보험대신 의료비나눔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MM은 건강보험회사가 아니며, H.R.3590 Religious Exemption에 의한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13 LA 동부지역 교회연합 성가제 열려



고태형 목사가 성가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는 <A Festive Gloria>와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를 무대에 올렸다.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는 <주 오심을 예비하라>와 <놀라운 신그 이름>으로 찬양했다.



선한침지기교회(송병주 목사)는 <비전>,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나성한미교회(전병주 목사)는 마크 헤이스의 곡 <시편 150편>으로 찬양했다.



하나로커뮤니티교회(양성필 목사)는 <주님>이란 곡으로 성가제를 장식했다.



유니온교회(문병용 목사)는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과 <왕께 찬양합니다>를 불렀다.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는 성탄에 잘 어울리는 곡 <아기 예수>를 찬양했다.



참가했던 교회들의 찬양이 끝난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다.

LA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김병학 목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교회가 연합해 성가제를 열고 헌금을 뜻 깊은 곳에 전달한다.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LA동부지역 교회 성탄연합성가제가 남가주주님의교회(한의준 목사)에서 열렸다.

총 7개 교회 찬양팀들이 참여한 이날 성가제는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돼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가 기도하고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가 설교했다.

고태형 목사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끔찍한 테러 소식을 대하면서 인간 안에 얼마나 흉칙한 죄의 모습이 가득한지 실감하게 된다"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성가제에서 총 7팀이 각자 준비한 성가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참석한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진행을 맡은 김병학 목사는 "여년보다 교회 찬양팀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저마다 여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가 된다"며 "찬양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목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모든 교회가 찬양을 마친 후에는 전체 참석자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다같이 부르고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참석한 교회의 성가곡은 다음과 같다.

나성한미교회(전병주 목사) 시편 150편(Mark Hayes)/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 주 오심을 예비하라, 놀라운 신그 이름/ 하나로커뮤니티교회(양성필 목사) 주님/ 선한침지기교회(송병주 목사) 비전,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유니온교회(문병용 목사)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 왕께 찬양합니다/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 A Festive Gloria,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아기 예수 등이다.

이인규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정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베리칩만 안 받으면 구원? 구원의 징표는 의식과 삶

성산생명윤리연구원 세미나 조덕영·이승구 박사 등 발제



조덕영 박사

한국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상은 생명윤리연구원장)는 7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춘강의실에서 '베리칩,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창립 16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종원 교수(서울시립대 철학과)가 '베리칩의 개념과 철학적 함의'를, 박준현 교수(정신의학과 전문의, 인제대 임상교수)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베리칩 논쟁'을, 조덕영 박사(장조신학연구소장, 창조문호포럼 대표)가 '베리칩에 대한 신학적 논점'을,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베리칩 관련 생명윤리 논점과 대안'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이종원 교수는 "베리칩이란 'Verification'과 'Chip'의 합성어로 '확인용 칩'을 의미한다. 쌀알 크기의 작은 마이크로 칩으로, 생명체의 몸 속에 투여해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며 "베리칩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베리칩'이 갖는 철학적 함의에 대해 "첨단기술(도구)에 의해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변질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은 단순한 인간의 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며 존재적인 사건이다. 더 이상 목적을 위한 수단 혹은 합리적인 도구가 아니고, 현대사회의 모든 존재자들을 대상화하고 부품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베리칩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과 궤를 같이해"

특히 조덕영 박사는 '베리칩에 대한 신학적 논점'을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종말론으로서의 '베리칩' 신학은 시한부종말론적 경향을 지닌다는 점에서 세대주의 신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세대주의는 주로 인류 역사를 도식적 세대 구분의 틀 속에 넣는다는 특징을 가진다"며 "문제는 세대주의의 경우 각 세대뿐 아니라 마지막에 임할 (천년)왕국시대를 문자적으로 이해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나온 인류 역사를 6세대(6천 년)로 규정하게 되어,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 구분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세대주의의 문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도식화해 해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는 데 있다"며 "성경을 문자적으로 절대화할 때, 성경이 단순한 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성경 내용을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마치 판타지 만화와 같은 책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즉 기본적인 성경해석학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미숙한 성경 해석은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다 이단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베리칩' 신학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박사는 "요즘 일부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시한부종말론을 가

"그리스도인들, 일반은총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승구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의식과 삶의 태도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를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이 그들이 '침송의 표'를 받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베리칩'을 몸 속에 이식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가지는가 아닌가'가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베리칩은 '666'이라는 '침송의 표'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므로 베리칩을 요한계시록과 연관시키거나 기독교적 종말론과 연관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건전한 성경해석자들이나 건전한 신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연관이



이승구 박사

점에서의 논의란 '각자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문제'로, 그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한 의료적 돌봄과 도움을 위해 베리칩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기는 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성경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각자 신실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베리칩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측면 분석 필요

의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임할 천년왕국시대를 계산할 경우 지구는 긴박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시한부종말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만일 세대주의에 따른다면, 흑시 휴거와 종말의 시기가 이미 지나쳐 버린 것은 아닌가 우려(?) 될 정도로 지구는 모든 6천 년이(?) 될 지나가 버렸으니 필연적으로 시급한 종말이 우리 세대에 임해야 하는 것"이라며 "적그리스도가 '베리칩' 곧 666이라는 소동은, 바로 이 같은 세대주의의 세대 구분 신학과 아주 잘 들어맞는다. 기독교는 종말과 재림을 믿는 종교다. 하지만 긴박한 종말론이나 시한부종말론은 항상 큰 부작용을 불러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조 박사는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나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큰

지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한국교회 안에 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며 "이것은 자칫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는 착각 속에서 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누(累)를 범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박사는 "최근 한국교회에 갑자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상한 신비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늘 바른 하나님 말씀의 분별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에 이런 불안을 동반한 신비주의가 만연된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베리칩' 소동은 바로 이 같은 혼돈 속에서 등장해 미혹의 마약처럼 번지고 있다. 깨어 기도하고 사단의 꾀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일반은총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일반은총적 관

베리칩의 1차적 목적은 의료상 유용성에 있다. 만약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온다면 의사는 그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그럴 때 그의 몸 안에 베리칩이 이식되어 있다면 의사는 간단한 스캐닝만으로 그의 신원, 보험 정보, 병력 및 그간의 진료 기록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베리칩 이식에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주사기에 이 칩을 넣고 손 혹은 팔에 이식만 하면 된다. 체온에 의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기에 추가 시술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피이식자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병원과 공유되어 저장된다.

따라서 이 칩 하나만으로 개인 식별과 관리가 가능하다. 범죄자 색출 및 추적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누군가로부터 자유를 심각히 침해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 큰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하다.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p>선한목자장로교회 고태형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50</p> <p>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p>	<p>남가주기쁨의교회 이황영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p> <p>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p>	<p>토랜스선한목자교회 김현수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3부 EM-Couple 예배 오전 11:00 4부 EM-Single 예배 오후 1:30</p> <p>253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T. (310) 326-2001 / (310) 989-4381</p>
<p>한미장로교회 이운영 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시30분 새벽예배(월~토) 오전 5시30분</p> <p>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 (213) 739-8824</p>	<p>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Holy Wave(EM) 오전 10:15 대학청년부 오후 2:00</p> <p>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 F. (909) 548-3722</p>	<p>성광장로교회 이상훈 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1359 W 24th St Los Angeles, CA 90007 T. (323) 732-3440</p>

온전한 용서의 유익

마태복음 18:15-3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말씀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중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없으려 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 그 동료가 없으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본문은 교회의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과 단 둘이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양심을 속이며 오히려 상대를 욕하고 권면을 배척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아는 같은 교회 성도 두세 사람과 함께 말마다 증참(증인으로 참여하게 함)하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음과 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준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 것

은 철저히 보상하고, 용서를 받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고사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패악한 반응이 나오면, 교회에 말하고, 즉 목자에게 말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 소망을 가꾸자는 성도들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종용해서 그 영혼을 살리도록 힘써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회중이 기도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아니하거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다는 영적 소망의 신앙으로 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의식 속에 세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곱 번까지 용서하는 아량을 보이며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하십니다. 이 말씀은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상대가 너의 권면을 받고 회개만 한다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죄 지을 근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2.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본문 23절부터는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의 종이 일만 달란트(장점이 삼십 삼년간 일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를 빚졌는데,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니다.

이를 본 동관들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고 돌아오던 길임을 알기에 그의 하는 일이 심히 민망하여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하며 꾸짖어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맡겼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하셨습니다.

신명기 19:15~19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 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 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 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라도 온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 하리라(신19:20)”합니다.

3.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야고보서 3:2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갈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조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실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지 않은 말까지 보태가며 사람을 이간질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용서를 빌고 나가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더 성숙된 사람이 예수님 닮은 표지를 먼저 나타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상대의 잘못이라고 다투게 된다면 그 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4.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마태복음 5:26에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을 생각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용서의 유익은 상대방에 있

는 것인지 내게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작은 죄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베풀고 위로하며 그 사람의 그릇됨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깨달아 알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결코 그 상대에게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서로 대립해 가는 결국엔 서로가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억울함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큰 위로함의 뜻을 세우셨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는 자신이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듭을 온전히 다 푼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매듭지어진 많은 매듭들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둘러 살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조물주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을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뭐 저런 것을 만들어 놓았냐고 푸념하는 것과 같고 결국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서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한 도우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상대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일백 데나리온(민분의 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도리어 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탕감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지는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큰 죄 또한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값을 치루고 마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30분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 30분 / 동부 오후 7시 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스포츠선교학 Ph.D 과정

성탄에 숨은 이야기들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성탄절이 되면 낫타를 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며 구세주가 탄생하신 일을 만방에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도움을 주었지만 숨겨져 있는 분들이 있다. 그 중에서 몇 분만이라도 찾아서 이야기를 하자.

먼저 아기의 아버지되는 요셉이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민족적 영웅인 다윗의 혈통을 이었으며 가난하지만 근면한 목수로 가족을 잘 부양하고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인이었다. 신구약을 통해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은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의로운 노아, 고통을 통해 성숙한 욥 같은 사람들인데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실례로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불미스러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마리아의 생이 끝난다는 것을 아는 요셉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풀어준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안심하고 데려다가 행복하게 살면서 낳을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한 그대로 실천했다. 요셉은 마리아를 전보다 더 사랑하며 늘 관용으로 그 가족을 돌보았다.

또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어린 구세주를 맡아서 잘 키울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한평생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아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보살피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일등 후원자가 된다. 태아 교육을 위해 당시의 제사장인 사가라의 집에 가서 영적 훈련을 몇 달씩 받기도 했다. 헤롯으로 인하여 여러 해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여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다.

삼십삼세로 한창 일하시던 예수가 가장 흉악한 죄수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양손과 양발에 박힌 굵은 못 사이로 흐르는 붉은 피는 창에 찔려 흐르는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고통을 참기 힘들어 온 몸을 비틀면서도 “어머니, 저 요한이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를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하는 가난한 아들의 유언을 들을 때 몇 번이고 기절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리아는 홀어진 제자들과 기도회를 시작했다. 그 때 모였던 120명이 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이 땅위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책임은 물론 신앙적으로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교육시키고 남들에게 의인답게 산 모습이 너무도 존경스럽다. 마리아는 한평생 당하는 고통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분으로 만대에 칭찬을 받을 만하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모를 롤모델로 삼고 자녀들을 잘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장군이 된 목회자 지망생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한국의 월남전 참전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채명신 장군이 소전을 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돌아가신 채 장군이 국가에서 정해준 장군의 묘역이 아닌 병사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히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온다.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인에 대한 기사를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다. 고인은 참으로 대단한 군인이었다. 이북 출신으로 공산당에 참여하라는 김일성의 권유를 뿌리치고 남쪽으로 와서 군인이 된 후 6.25 사변에 참전해서 많은 전공을 올리고 후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훌륭한 군사전략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용장이요 지장이자 부하들을 끔찍히 아꼈던 덕장이었다고 한다.

그에 관한 글을 읽던 중 문득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본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인으로 본래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이 후원하는 공산당이 이북에 들어온 후 교회를 압박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이에 대항하는 청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관학교를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그는 군인으로서 최

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나 언제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 있다.

6.25 전쟁 중 한번은 인민군에게 포위가 되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다. 그는 부하들을 축복한 후 각자 알아서 탈출하라고 말한 후 스스로 자결하기 위하여 권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불발되었다. 그 모습을 본 옆의 부하가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죽으시려고 하느냐며 말리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사일생으로 그 곳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늘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한번은 유명한 북한군 지휘관을 생포해 처형하였는데 그의 부탁을 들어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살피 주었다고도 한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사신을 넘으면서도 살아남았고 장수를 누린 후 이제 많은 부하들의 애도 속에 자기가 사랑하던 병사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장례식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명가수가 그가 제일 사랑하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임이 중한 죄짐 벗고보니”를 불렀다 한다. 참 멋있는 장수이자 신앙인의 삶이요 죽음이다 싶다.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려 했던 청년이 전선을 누벼야 하는 군인이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지만 이 분 안에 있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선에서도 변함이 없었구나 싶다. 전쟁 중에도 부하들 한 명 한 명을 양을 살피는 목자의 심정으로 보살폈고 심지어는 적군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영락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기만 하면 삶도 죽음도 아름다운 수있음을 해삼 보여준 귀한 분이시다. 모조록 이런 군인, 이런 사업가, 이런 교사, 이런 일꾼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주성교회 새 성전이전 감사 예배

부족한 저를 주성교회를 이어 주성선교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하와이언 가든 시온 마켓 안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전을 위해 하나님과 많은 분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 성전이전 감사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화와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청인 : 주성선교교회 담임목사 손 태정 와 교우일동

• 일 시 : 2013년 12월 22일 (주일) 오후 6시

• 장 소 : 주성선교교회 (주성학원)

12539 East Carson St Hawaiian CA 90716

• 초청강사 : 강 남 중 목사 (전 한생명교회 당회장)

찬양리더 : 양승훈 전도사 (화요찬양 10년 섬김)

찬 양 단 : 디사이플 축구 찬양선교단 (단장 김석범 집사)

김치 문화, 복음 문화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지난번 추석을 지나면서 또 느낀 것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루 온종일 길려도 10시간 이상씩 교통체증을 견디며 기어코 고향을 향해 가는 민족대이동의 현상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분명 기이한 모습입니다. 한국인의 피에는 가족 중심으로 뭉치는 대단한 유전인자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가치를 둔 유전인자는 한국사람의 언어습관에도 배어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남 앞에서 우리 집, 우리 나라, 심지어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 서슴치 않고 표현하는 습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면 무조건 ‘척’이라는 흑백논리의 위험성이 있지만, 한국인의 의식구조에는 뭔가 남다른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도 ‘공동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표현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이름 영어 표기기도 유행처럼 빠졌음이 들어가는 단어가 ‘community’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공동체적 역할과 그 기능이 강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있는 공동체 의식에 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본래 가족공동체 중심으로 모이는 강한 민족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의 김장 문화를 공동체가 함께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Making and Sharing Kimchi)’ 문화로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DNA에 박혀 있는 공동체 의식은 이제 세계도 알아주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알파한 달력 한 장만 남은 12월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 보며 마무리하는 달이며, 우리에게 23년의 베델의 목회를 은퇴하시고, 본격적으로 북한 사역으로 매진하실 손인식 목사님을 떠나 보내는 왠지 쓸쓸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만 돌아볼 뿐 아니라, 지난 23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 베델공동체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꼼꼼히 되새김질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 다르고, 본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우리 베델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새 가족으로 모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모여 김치를 하고 나누었던 정 많은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과 함께 만들고 나누라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 목사님을 보내는 12월은 마냥 슬픈 이별의 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다른 나눔의 달이요, 파송의 달이며, 베델의 새역사로 웅비하는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Making and Sharing ‘복음’ 파이팅!

세계 최초! 최대! 음이온 매트 초강력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 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99 LARGE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8.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100% 히트 상품!

숲속의 숙면

고가제품의 각종 건강 매트에서 효험을 못보신분.
Dr-NIONZ으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세요.

1.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짐
2. 심하게 코고는 분 70~80% 감소 효과
3. 잠못자서 항상 피곤하신 분 숙면으로 단잠
4. 호흡 곤란으로 힘드신 분 편안해집니다
5. 전립선으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확실한 효과
6. 피곤함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정신 노동 하시는 분에게 크게 도움을 줌
7. 귀취한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8. 스트레스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60 MINI

Dr-NIONZ provides more negative ions than a forest of waterfalls.
● Dr-NIONZ2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4.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매트 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킵니다.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닥터 니온스의 음이온 매트로 숙면을 즐기세요!!

무독성. 무취. 부작용 없음. 최고급 음이온 팔찌의 150배 음이온 발생
단 한번 구입 \$60 / \$99 평생 5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은 탁한 혈액을 맑게하며 혈관과 실핏줄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을 높여줍니다.
엔돌핀과 NK 세포를 내보내도록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약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 치매, 중풍과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 매트 사용은 자연 숲 속이나 폭포수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후기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자궁수축과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사용 2개월, 여) 60대 초반 김정은
- 많은 건강 매트를 사용해 보았지만 이렇게 효능있는 확실한 제품은 처음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다섯 여섯번씩 다녔지만 지금은 한 두번정도. 잠자리와 호흡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용 1주일, 남) 70세 정재용
- 손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못 잤는데 Dr-Nionz 사용후 코를 아주 적게 골며 잠을 잘 잤다. (사용 1주일, 여) 80세 복포 할머니
- 아내가 밤이면 네다섯번 잠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다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Dr-Nionz 을 사용한 다음날 바로 숙면과 함께 허리가 나아졌습니다. (사용 2달, 남) 50대 글렌데일 브래드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심하게 골던 코가 80% 정도 감소하고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David Lee
- 아내가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중 Dr-Nionz 매트 사용후 쥐 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아주 기쁘고 보너스로 코고는 것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인은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고윤기
- 추천 1: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Dr-Nionz 매트로 일주일 정도 사용 하였는데 숙면도 되고 만성 피로도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Dr-Nionz 추천합니다. (한의사 원장 이은희)
- 추천 2: 현대인**이엔 음이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 그리고 치매 중풍 뇌졸중등의 치명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초강력 음이온 Dr-Nionz 의 음이온 자연 자유 법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원장 조재범)

그동안 수많은 음이온 제품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를 보신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팔찌, 매트, 벨트, 팬티, 여성 속옷 (브라 or 코르셋) 음이온 생리대 등 음이온 발생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음이온의 효과를 누리지 못 하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음이온 제품들을 측정해 드립니다.**

니온스 음이온 팔찌

업계 최고의 품질 보증!

강력한 음이온 방출
최초 3D 입체형 디자인

\$20 ONE 팔찌
\$22 양편 (TWO TONS) 팔찌

11 컬러 3 사이즈

1. 최고 수치의 음이온 방출.
2. 입체형으로 통풍이 잘 되며 습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
3. 포장 법을 준수하여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확실하게 낮추었습니다.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커버

강력 음이온 팔찌보다 32배 음이온 방출!

COMFORT POWER GRIP

\$30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 졸음 운전을 자주하시는 분
-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
- 운전중 집중력 강화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5 year WARRANTY 명품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역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Zero Gravity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무척 시원해요!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풀옵션!
머리부터 발 끝까지

SALE \$4,200

Reg. \$6,499.00

FUJITA KN9003 / 2013 최신행!
BEST SELLER! 소비자 만족 1위

7~8 천불 상당의 타사 마사지체어와 비교 해 보세요!!
품질은 최고, 가격은 정직한 절반값!!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로데오 갤러리아 몰안
대표전화: 323-454-7872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175/월 2년 무이자
www.Gosmartworld.com

“성탄절에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존 파이퍼 목사, 한 달 동안 관련 말씀 게재

존 파이퍼牧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중심 삼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말씀을 ‘Desiring God’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파이퍼牧사는 위 구절을 인용한 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의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다. 또한 그 기도의 절정은 24절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인도하신 자들(요 6:44, 65)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이자 삶의 보배(요 1:12, 3:17-18, 10:11, 20:28)로 받아들인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하길 원했다”고 했다.

그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로우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한다. 예수님도 이에 동의하시는가? 그렇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셨다. 왜 그러한가? 나머지 구절을 생각해 보라.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가?”라고 물었다.

파이퍼牧사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는 구절에 대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외롭지 않다. 성부와 성령이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의 교제 속에서 깊은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행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전, 그는 아버지께 깊은 마음을 쏟아냈다. ‘아버지, 나의 있는 곳에 아버지도 함께 계셔서, 아들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바라셨던 것 중 절반에만 해당한다. 나는 앞서 우리가 정말로 그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이를 맛보고, 즐기고, 기뻐하고, 소중히 하고, 사랑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묻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보라. 이것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단순히 그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그를 사랑하길 원하신 것”이라고 했다.

파이퍼牧사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목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가진 것과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사랑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 사랑을 따라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 역시 아들을 사랑하길 원하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성령을 통한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그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 그의 영광을 보고 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내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또한 온전하지 않은 인간의 사랑을 훨씬 넘어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재림을 앞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 참여하길 원한다”고 했다.

DesiringGod.org의 설립자이자 사이버 베들레헴신학교 학장인 존 파이퍼牧사는, 지난 33년 동안 마네폴리스에 위치한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로 섬기다가 올 초 은퇴했다. 그는 ‘Desiring God : Meditations of a Christian Hedonist’를 비롯해 약 50여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기도 부스, 설치만 해도 범죄율 감소

비기독교인도 이용... 상담과 같은 치유 효과

미국의 한 도시에서 공공장소에 ‘기도 부스’를 설치한 이래로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캔자스시티는 몇달 전 주민들이 하루 일과 중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기 원할 때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이나 공원 등에 기도 부스를 설치했다.

기도 부스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칸막이와 함께 무릎을 댈 수 있는 접이식 기도 의자가 달려 있으며, 설치된 이래로 현재까지 10만여 회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인 토피카 뉴스(Topeka News)는 기도 부스의 일부가 이 도시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도 설치됐고, 이 지역 내에서 기도 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전하기도 했다.

기도 부스 설치를 시 의회에 제안한 주민들 가운데 한 명인 마일스 콜리어 목사는 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도 부스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 원하거나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잠시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마치 무료로 상담을 받는 것과 같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도 부스가 설치된 모습 ©Twitter/Justin Boulet

그의 말처럼 기도 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도 있다.

이는 기도 부스가 보다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나 교단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기도 부스는 원래 달린 모티머라는 설치 예술가의 작품이었으나, 발표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면서 캔자스 시티에 앞서 시카고, 뉴욕, 라스베이거스, 아이오와 등의 도시들에서도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됐다.

강혜진 기자

릭 워렌과 교인들, 1년 만에 113톤 감량

릭 워렌 목사와 새들백교회 교인들은 체중 감소를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교인들 중 대다수는 3년 전 체중 감소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에 도전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가 있었던 첫 해, 교인 전체적으로 총 25만 파운드(11만 3,400kg) 이상의 몸무게를 줄였다.

현재 리 워렌 목사는 그의 새로운 저서 ‘다니엘 계획: 건강한 삶을 위한 40일’을 소개하며,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있다.

그는 교인들과 더불어 체중 증가를 비롯한 건강상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는 “성경에는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했다고 기록돼 있다. 전하는 것은 전도, 가르치는 것은 교육, 치유하는 것은 건강 관리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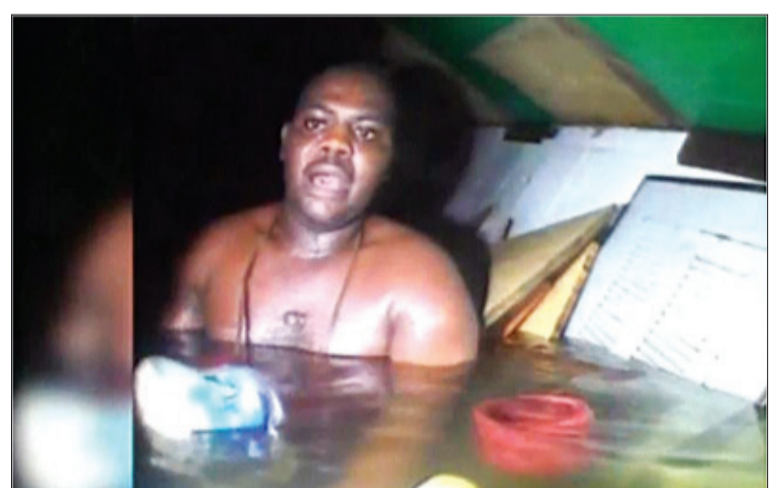
지 않으셨다. 영과 마음, 그리고 육체를 모두 돌보셨다. 내게 있어서 건강 관리는 단순히 아픈 것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제목이 풍기는 이미지와 다르게, 책에서는 성경에서 유명한 다니엘 금식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외과 의사인 오즈(Oz) 박사를 포함한 건강 관리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5가지 ‘F’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기서 F는 건강한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퍼즐의 ‘첫 번째’(first) 조각을 제시한다.

그는 또한 영성과 건강함 사이에 교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의 책 ‘다니엘 계획’은 영적인 동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혜진 기자

수심 30m에서 3일 만에 구조

“성경 묵상하며 사투”



해리스 오그제바 오킨이 구조될 당시의 모습. ©유투브

수심 30m 아래서 3일 간 버티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한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연안 대서양에 떠 있던 예인선이 큰 파도에 휩쓸려 뒤집히면서 30m 해저로 가라앉았다. 이 배 요리사로 근무하던 해리스 오그제바 오킨은, 운이 좋게 선박 안에 생긴 에어포켓(공기 주머니) 속에 머물면서 구조를 기다렸다.

콜라 1병으로 3일을 버티던 그는 평소 묵상하던 성경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며 견디 끝에 구조됐다. 그와 함께 승선한 우크라이나 선장과 나이지리아 선원 10명은 모두 사망했다.

그는 “내가 이대로 죽는 걸까? 내

가 죽으면 내내는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이제 마지막인가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눈도 침침해지면서 공포감이 밀려왔으나, 그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평소 잠들기 전 읽었던 성경구절인 시편 54-72편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구조된 순간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시신 수습을 위해 들어갔던 잠수부의 인기척을 느낀 그가 손을 뻗어 잠수부의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은 최근 네덜란드 회사 DCN 다이빙이 최근 유튜브에 공개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강혜진 기자

“아프리카 ‘차드’ 소망우물 파기 후원”

성탄절 기념

“찬양과 나눔의 밤”

조이플 선교 남성 중창단

C.M.C(California Master Chorale)

- 일 시: 2013.12.20(금) 오후 7시(오후 6시 식사제공)
- 주 최: 조이플 선교 남성 중창단(지휘: 서문욱 반주: 이효경)
- 협 연: 오렌지 남성 성가단(지휘: 서문욱 반주: 안정희)
C.M.C(California Master Chorale)(지휘: 김원재 반주: 신유희)
필그림교회 성가대(지휘: 서문욱 반주: 이지수)
- 협 찬: 라디오 코리아



2341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el: 714-520-0032 www.ilovepilgrim.com

워싱턴교협 제12회 성탄축하 음악예배 성료



워싱턴교협 주최 '제12회 성탄축하 음악예배'가 12월 8일 열린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 주최 '제12회 성탄축하 음악예배'가 "온 땅이여 찬양하라"는 주제로, 12월 8일(주일) 저녁 6시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열렸다.

눈이 오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렸다.

최인환 목사는 인사말에서 "2천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영원한 새 생명의 나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멸망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가는 통로가 되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한다"며, "이번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통해 어두움이 있는 곳에 주의 빛이 가득하게 임하고, 격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곳에 주의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길 바란다. 또한, 워싱턴교협 산하 모든 교회들과 워싱턴한인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한나, 최나실 양이 중창, 김영천 집사(교협 평신도 부회장)가 기도한 후, 노규호 목사(교협 부회장)가 설교했다. 노규호 목사는 마태복음 1장 18-25절을 본문으로 "예수의 나심"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노 목사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인간들과 함께 이뤄가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

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을 축원했다.

성탄축하 음악예배는 백유진 양의 바이올린 독주, 올네이션스교회 성가대(지휘 이철 목사, 반주 최정원), 와싱턴제일연합감리교회 성가대(지휘 한미영, 반주 임은빈), 워싱턴몽골리안교회와 은혜교회 연합합창단(지휘 톨가 도르프, 반주 오양가), 흥덕진 목사(교협 회계)의 헌금 기도, 드보라워싱턴스 선교단(단장 강정아 목사), 워싱턴그레이스사모합창단(지휘 이철, 반주 손희라), 워싱턴베다니교회 찬양대, 페어팩스한인교회 성가대(지휘 허인수, 반주 진수현), 워싱턴침례대학교 찬양팀(지휘 임지혜, 반주 김희정), 연합성가대(지휘 조혜숙, 반주 송연석), 박상섭 목사(교협 총무)의 광고, 전체 합창, 김인호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나레이션은 이선희 집사가 맡았으며, 헌금위원으로는 워싱턴지역여성교회연합회(회장 김환희 집사) 회원들이 섬겼다.

이날 모여진 헌금은 필리핀 태풍 하이엔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워싱턴교협은 이날 행사를 DVD로 제작할 예정이다. 필요한 이들은 교협에 문의하면 1개당 10불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워싱턴교협 제39대 재정이사 위족 모임을 12월 10일(화) 오후 7시 우래옥에서 열었다.

문의: 703-629-0691(대표전화)
301-526-7550(회장 최인환 목사)
571-830-8820(총무 박상섭 목사)
주요한 기사

이것이 맨하탄 젊은이의 기독교 문화!

뉴욕정원교회 9주년 특별공연, 세상문화에 대한 상쾌한 도전



뉴욕정원교회 9주년 기념공연에서 주효식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포즈를 취해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 맨하탄 목회의 대표주자인 뉴욕정원교회가 지난 11월 30일 선보였던 9주년 특별 기념공연 '응답하라 NYGC'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 문을 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다.

2004년 맨하탄 맨바닥에서부터 기도로 시작된 뉴욕정원교회가 현재 타임스퀘어 광장 정례 기도회를 선도하고, 카페를 통해 세상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방황하던 맨하탄 유학생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양성소로 자리잡기까지 지난 세월을 돌아 보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위해 마련했다.

'응답하라 NYGC' 공연은 스타워즈 시작자 막을 패러디해 뉴욕정원교회의 역사를 긴 자막으로 기록하며 막을 올렸다.

공연 중에는 2006년-2012년까지 유행한 드라마 명대사들을 뽑아 뉴욕정원교회 내에서 부부가 된 집사 가정의 신앙스토리로 만들어 큰 웃음을 주기도 했고, 힙합 감성이 주요 취미인 교회청년이 자사 작곡한 기독교적 힙합곡 3개가 연달아 발표(?) 되기도 했다. 위대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감사를 담은 곡, 기독교적 내용이 리듬감 있는 힙합에 담겼을 때 공연의 즐거움은 더해졌다. 젊은 시절 공중파 TV 합창단으로 출연하기도 했던 주효식 목사는 솔로곡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날은 교회의 부목사도 카페 DJ가 됐다. 이날 DJ가 된 하동호 부목사의 말이다.

"뉴욕정원교회는 왜 교회에 카페가 있고

공연을 하고 문화사역을 하고 자주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까요? 우린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화사역!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을 문화라는 도구를 활용해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성전이자 카페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세상에 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나 목회자가 된 주효식 목사의 맨하탄 목회 사연은 매우 특별하다.

아무도 가지 않은 좁은 길로만 가려던 그를 만류했던 주변인들도 현재의 뉴욕정원교회 역동성에 박수를 보낸다. 때문에 주효식 목사의 9주년 소감도 남달랐다. 주효식 목사는 그동안 함께 해준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10주년과 더 큰 미래를 향한 희망찬 소감을 말했다. 다음은 주효식 목사의 이날 9주년 관련 발언이다.

"사람들이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했던 곳이 9년이 됐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보이는 교회이지만 단순하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한 소망 안에서 저와 다른 교역자들과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은 방향과 목적으로 가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10주년에는 1년 동안 힘을 모아 저력을 보이는 시간을 보였으면 좋겠다."

김대원 기사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산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일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장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E모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축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가 생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모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림들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 388-2105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모예배 오전 10:00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7기, 2기, 3기, 4기 수료생 배출, 현재 5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 미켓 튀)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모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찬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넛 전번)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임, 성경학교노년회, 만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 초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벨리서(Callng), 크리치(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선(Online)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평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으로부터 지키며, 이단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의 밤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9:30(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토)
3부 오전 11:30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에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헌 목사, 백성영 목사
베리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창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 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 1부 9:45/2부 11:45
2부예배 오전 9:45 주일학교 오후 12:00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찬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찬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후 1:00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pk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할-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누리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분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뉴욕 목회자들의 합창, 사회에 희망의 빛 전하다



뉴욕남성목사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가 뉴욕에일장로교회에 열렸다.

뉴욕남성목사합창단(단장 김중훈 목사, 지휘 이다윗 목사)이 8일 오후 6시 뉴욕에일장로교회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올해 초 창립 이후 꾸준히 연습을 가져왔던 목사합창단은 성도들에게 첫 정기무대를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날 정기연주회는 청소년 마약퇴치 기금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열리면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 교계 행사에서 가끔 합창 순서를 맡아 아름다운 화음을 보여줬던 목사합창단은 이날 합창, 중창, 연합찬양 등의 다양한 무대에서 영성 넘치는 힘찬 합창으로 큰 감동을 줬다.

또 이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을 비롯한 다양한 뉴욕 인근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특별출연해 풍성함을 더했다. 마지막을 장식한 목사합창단과 장로성가단의 연합합창으로 웅장한 찬양이 예배당 가득 울렸다. 연합합창은 뉴욕의 목회자와 장로가 합창으로 한 자리에 서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 마련되는 시간이었다.

목사합창단은 '주는 나의 참 목자(시편23편)', '주님 오실 하늘 바라보며', '주여 평화를 주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두 번에 나눠 합창했다. 또 파트를 나눠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창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목사합창단 순서 외에도 뉴욕에일교회 여성트리오의 무대와 유안나 바이올린 독주, NY Korean Brass의 합주, 소프라노 유경화의 무대, 지인식 목사-이정은 사모의 혼성 듀엣 무대 등도 이어졌다.

목사합창단과 장로성가단의 연합합창은 '나의 하나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각각 이다윗 목사와 이정진 장로의 지휘로 선보였고, 이어 목사합창단, 장로성가단의 가족들이 모두 참여해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합창했다. 제일 마지막 순서는 모든 합창단원들과 참석한 성도들이 'O Holy Night'을 열창하며 마무리 됐다.

이날 정기연주회를 통한 수익은 중독자 재활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목사합창단은 뉴욕 나눔의집(대표 박석원 목사)에 수익금을 전달, 중독 치유활동을 돕는다.

김대원 기자

제2회 뉴욕총신의 밤... 동문 150여 명 참여



뉴욕총신 동문들의 단체사진.

뉴욕총신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강유남 목사)가 후원하고 뉴욕총신대학교 학우회(분교 학우회장 김백준 전도사, 분교 학우회장 변병두 장로)가 주관한 '제2회 뉴욕총신의 밤' 행사가 4일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뉴욕 분교와 뉴저지 분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학생들과 교수진, 동문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제1부 예배, 제2부 만찬, 제3부 환영 및 축하 연주, 제4부 경품 잔치, 제5부 폐회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는 뉴저지 분교장인 강유남 목사의 사회로 드렸다. 기도는 박희근 교수가 맡아 '참된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귀한 교육 기관을 세워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뉴욕총신을 통하여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했다.

이날 함께 모인 동문들은 세상의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김대원 기자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제24차 정기총회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제24차 정기총회가 12월 2일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 오광섭 목사) 제24차 정기총회가 12월 2일(월) 오전 11시 우리교회(담임 양승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박석규 목사의 사회, 민영진 목사의 대표기도, 찬양대의 찬양, 신석태 목사의 설교, 조국과 미국을 위한 특별 기도(오쾌환 목사), 이태구 목사의 헌금 기도, 문경원 목사의 광고, 오광섭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신석태 목사는 베드로후서 1장 5-7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덕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원로목사회는 지난 2년 동안 정성껏 차량 봉사로 섬겼던 김범수 목사(워싱턴교협 중경회장)와 워싱턴교협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투표 결과 신임회장은 박석규 목사, 부회장은 이원희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남은 임원진 선임은 신임 회장단에게 일임됐다.

또한, 2014년도 주소록이 발간돼 회원들에게 배부됐으며,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 임원회에서 각 회원 가정에 귀한 선물을 전했다.

조요한 기자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고객사랑 연말대세일

위산보다 개선과 위산억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사랑 감사 대세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적의 암치료제 미라팜-22를 출시하면서 HQ구연산 고객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고객님들께 사상 최저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Sea of Cortez 소금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소금이며 천연 미네랄 함량이 전체 무게의 17%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암염보다 10배 이상, 기타 소금보다 5-20배이상 함유된 세계 최고의 무공해 천연 바다 염전 소금입니다.

HQ구연산은 시중에는 없으므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타사 100% 구연산 캡슐제품은 인체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므로 FDA 위법 제조로서 고발 대상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10병 or 오리지널 10병 프로모션 A \$360 \$100 No Tax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프로모션 B \$360 \$100 No Tax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8병 프로모션 C \$36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일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화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찰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미안함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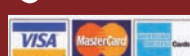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은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박사 분수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한경직 목사, 교회 갈등 생기자 “내 잘못”

한국교회사학연구원, 고인의 리더십과 의미 분석

“목사로서의 그의 인격은 문자 그대로 전인적인 신앙인이기에, 신앙과 생활 사이에 괴리(乖離)가 없고 신앙과 신학 사이에도 모순이 없다. 삶이 표(表)와 리(裏)의 상이(相異)가 없고, 신(信)과 행(行)에도 완전한 일치(一致)를 보인다.”

영락교회 원로장로이며 대광학원과 영락학원에서 일했던 송성찬이 한경직 목사에 대해 한 말이다. 한경직 목사기념사업회의 김은섭 박사는 5일 한국교회사학연구원 학술발표회에서 ‘한경직 목사의 리더십과, 그 구조와 의미’에 대해 강연했다.

먼저 김 박사는 “한경직은 자신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서 “이것은 한 마디로 ‘사명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한경직의 리더십,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어린이와 아내에게까지 존칭 모임에선 항상 ‘부회장’ 만

그는 한 목사의 섬김의 리더십과 관련해, “한경직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이에게도 말을 높였다. 항상 주일날 새벽기도와 1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분당에서 내려오는 계단에 앉아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면 인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했다. 자신의 아내에게도 ‘오마니’라고 부르면서 존칭을 사용했다”며 “어린이와 아내에게까지 존칭을 사용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또 “한경직은 교회에서 당회와 같은 회의를 할 때도 억압적으로 한 적이 없고, ‘아니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 회의를 할 때 누군가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면 ‘일리가 있네요’라고 했다. 영락농아인교회의 어떤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 청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한경직은 청년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그의 나이가 적어도 60은 됐을 것이고, 큰 교회 목사가 청년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철신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한경직은 현직에 있을 때 항상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부회장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이 조직한 기구나 모임에서조차도 의장이

나 회장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신은 부회장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한경직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던 무명의 젊은 김장환 목사를 불러서 통역을 시켰다. 그 뒤에 김장환 목사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세계집례교연맹의 회장도 됐다. 김장환 목사는 한경직 덕분에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광선회 목사 또한 그러하다고 고백한다. 지금은 유명한 목자들이 무명의 젊은 목사 시절에, 한경직이 불러서 부흥회 강사도 시키고 한국교회를 위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맡기고 하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고백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한 목사의 ‘비전의 리더십’과 관련, “일제 말기는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다. 창씨개명에 의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도 잃어버리고, 얼이 담겨 있는 우리의 말과 글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경직은 ‘도대체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느냐? 정말로 우리 민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기도하셨던 보린원 뒷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환상을 보게 됐다”고 했다.

한경직 목사는 ‘나의 감사’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삼천리강산이 내 앞에 펼쳐졌다. 삼천리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용할 수가 없고, 높고 낮은 푸른 산세에 아름다운 부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락마다 흰 돌로 지은 예배당이 보였다. 그리고 사방에서 종소리가 들렸다’고 환상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김 박사는 “한 목사는 광복 이후 1950년 당시 하얀 돌로 영락교회를 세웠고, 차후 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교회와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월드비전은 그가 ‘이 세상은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1950년 5월 밥 피어스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경직의 통역으로 부흥회를 인도했다. 아마도 이 때 한경직이 밥 피어스에게 ‘이 세계를 보라’ 하면서 서울 근교의 비참한 상황,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들을 위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밥 피어스에게 요구했다. 그 결과 월드비전에 만들어지게 됐다”고 했다.

부·명예·권력 누릴 수 있었으나 바보 같이 그러지 않았다

한 목사의 ‘실천의 리더십’과 관련



한경직 목사

해서는 “한경직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신행일치·연행일치의 삶을 살았다고 회고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남을 도우라고 설교를 하고 자신은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 말씀 그대로 남을 도왔다. 옷도 주고, 구두도 주고, 돈도 주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줬다. 그는 사람들을 그를 존경해서 가져온 돈이나 물품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줬다”면서 “이런 실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존중하며 존경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뭐든지 협력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그의 말을 따랐던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목사의 ‘포용의 리더십’과 관련, “나라 사랑의 영성에서 나오는 한경직의 독특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섬김, 비전, 실천을 모두 아우르는 그의 리더십은 포용이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과 생각이 좀 달라도 나라 사랑을 위해서 모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다. 건전한 민주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자신이 목표를 위하여, 한경직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비전을 제시하고,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포용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꼽혔던 여러 사역자들의 소식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면서 “과연 우리 기독교에는 청담(스님) 같이, 김수환(추기경) 같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없는가. 여기 한경직이라는 인물이 있다. 비록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한 사람이건만 그는 무소유했다. 얼마든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누릴 수 있었으나, 바보 같이 그는 그러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훌륭한 부교역자 되는 십계명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 교육부(부장 김근수 목사) 주최 제1회 ‘전국 교회 부교역자 세미나’가 9일 경기도 분당 한울교회(담임 김근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세미나에선 고영기(상암월드교회)·노재경(총회교육진흥원)·남태섭(교육부 서기)·조성민(상도제일교회)·권순웅(주다산교회)·류명렬(대전남부교회)·박윤성(기쁨의교회)·김창현(소망이 풍성한교회)·문희경(백석대 상담대학원)·김진하(예수사랑교회) 목사 등 총 10명이 강사로 나서 심방과 전도, 교회법과 행정 등 부교역자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을 펼쳤다.

첫 강사로 나선 고영기 목사는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부교역자의 역할론’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고 목사는 특히 부교역자와 담임목사와의 관계성에 대해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이해하고 동역자로서 사역해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라며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간 열린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또 “부교역자는 미래 담임목사가 될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부교역자는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인재들”이라며 “부교역자는 소모적인 사역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 목표를 기획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부교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교역자의 기도생활과 설교준비’를 제목으로 강연한 김창현 목사는 “목회자를 종교인이라고 분류한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종교행위는 당연히 기도일 것”이라며 “즉, 기도는 목회자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 역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다. 또 설교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히 설교에 대해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가 성도들을 처음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목회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에는 회의가 든다”며 “이 말은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객관적으로 설교를 썩 잘하지 못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설교학 박사 학위가 있는 멋진 목

사가 목회함에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참 아이러니한 말인 것 같은데, 설교로 목회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설교는 최선을 다해 정말 잘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목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설교는 교회의 방향성과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율리 김 목사는 “이전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또 이전에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사도들은 다른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 사역은 내가 섰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역임을 알게 됐다”며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기도와 말씀이 서로 밀접한 관계임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부교역자가 갖춰야 할 에티켓과 언어생활’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강연도 있었다. 류명렬 목사는 ‘부교역자 에티켓 10조’를 제시했다. ①이 교회에 뽀를 묻을 각오로 일하라 ②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을 경계하고 ‘내 사람’을 만들지 말라 ③담임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라 ④담임 목회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존중하라 ⑤항상 겸손하고 나이 든 성도들을 공경하라 ⑥듣기를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 ⑦자신의 성격(性)적 정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라 ⑧교회 재정 집행은 가급적 교역자가 하지 않도록 하라 ⑨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 ⑩다른 부교역자와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등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교역자는 실천의 현장에서 일한다. 이 실천의 현장에서 영혼들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내일은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철저한 자기 통제와 성실함으로 영혼을 대할 때, 영적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힘쓰자. 조직에서의 갈등과 불평에 함몰되지 말고 진정한 목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자”고 권면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에선 남태섭 목사의 사회로 김근수 목사가 설교했고, 황규철 총무가 격려사를 전했다. 김진영 기자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죽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재미과학사승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621 S. 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리비아에서 살해된 美 교사, 선교에 불탔다



리비아 벤가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요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로니 스미스(33)와 그의 남은 가족들. © Twitter/Ronnie Smith

지난 주 리비아 벤가지에서 살해된 미국인 교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텍사스 출신의 로니 스미스(Ronnie Smith, 33)는 지난 5일(현지시각) 벤가지 도심에서 아침 조깅 중에 이슬람 무장단체 요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그는 이곳 국제학교에서 화학 교사로 1년 반 전부터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리비아 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안고 이 곳에서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스미스는 리비아로 오기 전에는 오스틴스톤커뮤니티교회의 집사로 섬기고 있었다. 담임인 데이브 바렛 목사는 “그는 리비아의 평화와 번영을 소망하고 있었고 리비아 국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스미스가 리비아행을 결심하기까지는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의 설교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이퍼 목사의 설교를 들은 뒤 자신의 교회에 올린 비디오 영상에서 “나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 또 걱정하는 교인들을 향해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나는 괜찮다”며 “무슨 일이 닥친다 한들 아무도 내게서 평안을 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미스는 처음에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리비아로 갔으나 현지 정세가 날로 위험해지면서 둘을 텍사스로 돌려 보냈다.

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존 파이퍼 목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로니는 지난 해 우리에게 쓴 글에서 나의 설교가 자신을 리비아로

이끌었다고 말했다”며 “오늘 아침 나는 그의 가족을 위해 울었다. 그러나 비통함과 슬픔 뒤 내 답은 그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썼다.

파이퍼 목사는 또한 “로니는 내가 하라고 격려한 행동을 하다가 죽은 첫 번째 사람이고 아마도 그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며 “만약 죽음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후회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나 로니는 죽음보다 더 최악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그곳으로 갔다”고 애도했다.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 붕괴 이래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횡행하면서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웃 국가들로 이주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인도 카스트 상위층에서도 기독교인 증가



과거 라이프업무브먼트가 개최했던 라이프업 인도 대회 모습

미국 크리스천뉴스(Christian News)가 2일 인도 카스트의 상위·중간 계층과 젊은이들 사이에 크리스천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 다양성이 큰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온 인도는, 최근 12억 명의 인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오퍼레이션월드(Operation World)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74%는 자신을 힌두교인, 14%는 무슬림, 6%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는 연간 4%의 성장률로, 인도의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선교사역을 조직·지원하는 미션사이어티(The Mission Society)는 지난 달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 ‘언피니시드(Unfinished)’ 최신호에서 이를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인도에서 기독교는 그간 하위 계층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근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은 선교단체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다.

미션사이어티의 디 맥클레인(Dick McClain) 대표는 “현재 인도에서 7000만명 이상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인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국가다. 그러나 456개 언어와 2,611개 인종으로 구성된 인도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88%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언피니시드 최신호는 “인도는 항상 여러 종교가 혼재했으며, 다양한 이유로 종파간 분열이 있다. 힌두교 국수주의가 증가하면서 한 쪽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뤄지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폭력적인 대응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이는 복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인도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 언피니시드는 “성령의 바람이 인도 전역에 걸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불어오고 있다.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에 향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배타적이었던 상위 계층과 다른 그룹들 안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현지 선교사들은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인도의 문화는 복음과 기독교의 전파에 대한 거대한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방글라데시에 기독교 막는 자경단까지 등장

교회 건축 방해하고 “개종하지 말라” 압박·협박

방글라데시 자경단 위원회가 형성됐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기독교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들로 인해 지역 교회 건축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중지된 채로 남아있다.

위원회는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은 무슬림 장로들과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9월 정부 관계자들은 탕가일(Tangail) 성결교회 건축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탕가일은 수도 다카(Dhaka)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다.

탕가일 교회의 건축은 9월 8일 시작됐다. 이 교회는 25명의 크리스천들이 지난 3년 동안 비밀리에 모임을 가져 왔다. 그러나 5일이 지난 뒤 지역

의회 의장을 비롯한 200명에 가까운 무슬림들이 건축 장소에 찾아와 건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 지역 이슬람에 소속된 이들이 1천명 이상 모였다. 이들 가운데는 72명의 이맘(imam, 이슬람 종교지도자)이 포함됐고, 이들은 지방 의회 의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의장은 그들이 자경단을 구성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막으려 한다고 ‘월드와치모니터(World-WatchMonitor)’에 말했다.

의장은 “기독교 전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순진한 사람들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크리스천이 될 만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었고,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크리스천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정치 지도자들과 학교 교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크리스천 활동을 중지시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장은 “지역 주민들은 남은 크리스천 개종자들도 이슬람으로 돌아오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안 좋을 것이다. 지역의 무슬림들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슬림 지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규,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쁜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양성필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영생장로교회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한소망교회

지영환 목사

주일1부예배 8:15
주일2부예배 11:00
수요일예배 7:30
새벽예배(화~토) 5:30

2869 W. Pico Bl., Los Angeles, CA90006
T. (213) 219-7500

웨스트힐장로교회

김인식 목사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영어예배(EM) 매주일 오전 9:30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818)884-2391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

1부 아침예배 오전 08:00
2부 전통예배 오전 0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EM) 오전 12:3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서승원 특별 기고>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오해들(9)

12) 헬레니즘은 개인주의적인가?
(3) 소피스트들의 경우

이와 같이 사회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시하는 사상은 심지어 개인주의적인 특색이 강한 소피스트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다.

소피스트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프로타고라스인데, 그 역시 폴리스를 떠나서 인간적인 삶은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의 이해가 개인의 이해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플라톤의 대화록 프로타고라스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폴리스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진적인 사상 때문에 소피스트들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는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데 진력하였다. 소피스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있다면 그의 묘사를 믿어도 좋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비전

샌더스 교수는 알렉산더가 아테네에서 배운 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정복한 지역에 희랍식 폴리스를 세우고 그 곳에 학교들을 세웠고, 이들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들을 충당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바를 세계에 가르치기 위해 아테네에 평화봉

사단(Peace Corps)를 세웠다고 그의 강연 원고에 적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알렉산더는 아테네에서 공부한 적이 없고, 적어도 인간관 및 정치관에 있어서는 그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르침과 반대로 행동하였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 1권에서 인간을 천성적인 노예와 자유인으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노예를 소유의 일부 즉 동산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워싱턴 중의 알렉산더에게 희랍인들은 동등하게 대우되 페르시아 인들은 노예처럼 취급하라는 권고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하장군들 중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알렉산더는 이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았다. 희랍인들과 피정복자들에게 구별을 철폐하고, 현지인들을 두루 기용하여 요직에 앉혔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현지 여인들을 아내로 맞게 했고 자신도 현지에서 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그는 말하자면 만인평등주의(egalitarianism)와 더불어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를 주창하고 또 몹소 실천한 셈인데, 장군으로서 불세출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그 정신과 사상에 있어서도 알렉산더 대왕은 시대를 크게 앞선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에게는 범인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실로 그는 희랍이 배



서승원 박사

출한 불멸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살아 있을 때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도 도처에서 그를 신격화했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부하들이 그의 시신을 모시려고 치열한 경쟁을 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 대한 감회는 실로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남녀의 구별이나 자유인과 노예의 구별이 없다고 한 성경의 가르침과 유사한 사해동포주의와 더불어 거대한 지역에 걸쳐 언어와 문화를 통일함으로써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오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준비 작업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남은 한 가지 문제는 점지적인 안정과 치안 즉 범죄율의 유지인데, 이것은 마침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두 사람은 이사야서(45:1)가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Cyrus the Great)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헬레니즘의 특징을 개인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희랍에 개인주의자들이 없었다거나 헬레니즘에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마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하였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생각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고 알렉산더가 실천한 것과는 반대로 개인의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자들 다시 말해 국가나 사회의 이익보다는 사사로운 명이나 부를 탐하는 자가 적었으리라고 보긴 어렵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성경적 사상이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인주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선지서들을 읽어 보면 당시의 지배층과 부유층 사람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사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주의의 극단적인 사례 또는 최악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이나 선지자들의 비판과는 달리 개인주의가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도 이방 신들을 섬긴 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나 철인들의 사상을 별도로 하고 '실제 생활에서 이스라엘사람들과 희랍인들 중에서 어느 민족이 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그것보다 중요시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희랍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수의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자들이 많은 비용을 대는 것은 물론 평화시에는 공공건물들을 짓는 데에 그들의 재산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행사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

예를 들면 아테네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비극과 희극을 공연하는데, 그 연습과 공연에 드는 비용을 부유한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덕으로 일반 시민들은 연극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아테네에 가 보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2세기에 세워진 헤로도스 아티쿠스라는 이름의 야외극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 극장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기념하여 이 극장을 지어 국가에 바쳤다. 그는 이외에도 많은 공공건물을 세워서 국가에 바쳤다.

그에 반하여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대 이스라엘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25)

English Basic Level 초급 영어 25회

Do you like a red jacket?
당신은 빨간 재킷을 좋아하십니까?
No, I don't like it.
아니요,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I like the blue jacket.
나는 파란 재킷을 좋아합니다.

Does your sister like a black skirt?
당신의 누나는 까만 색의 치마를 좋아하십니까?
No, she doesn't like it.
아니요,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습니다.
What color does she like?
그녀는 무슨 색을 좋아하십니까?
She likes the grey skirt.
그녀는 회색 치마를 좋아합니다.
Does your father like hot days?

당신의 아버지는 무더운 날을 좋아하니까?
No, he doesn't like hot days.
아니요, 그분은 무더운 날을 안 좋아합니다.
He likes cold days.
그분은 추운 날을 좋아합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 영어 25회

In Jerusalem during the Passover many people put their faith in Jesus, because they saw him work miracles. But Jesus knew what was in their hearts, and he would not let them have power over him. No one had to tell him

what people were like. For he already knew who they were.

유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아무도 그분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 사람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English High Level 고급 영어 25회

The truths cannot be inferior

to our minds, since our minds are subject to them. Therefore, these truths must be superior to our mutable minds. Whatever superior to the mutable is immutable. Therefore, there is an immutable Absolute Mind, which is the source of these immutable truths.

진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진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들은 쉽게 변질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야만 한다. 무엇이든 변하는 것들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정신이 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의 원천이다. -어거스틴 어록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제6회

심기영주회

2013년 12월 15일(주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 (323)931-1087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문의: 김사라 사모(310.938.4422) | 무료입장



단장
이상기 목사



지휘
전중재 교수



반주
헬렌박

특별출연

헤세드남성중창단 (세리투스성로교회)



지휘:성외정 집사, 반주:김경아 집사

살롬권사찬양대 (나성영림문교회)



지휘:노혜숙 권사, 울려편:임지연 집사
피아노:고강희 사모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www.pecpc.co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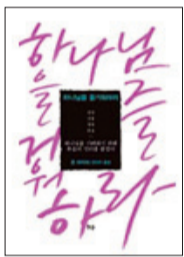


신간추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존 파이퍼 | IVP | 126쪽

'기독교 희락주의자'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의 4-6장을 재편집하여 엮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얻는 기쁨에 관한 책으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한다.



교회사 연구 방법론

우베 퀴네벡 외 | CLC | 341쪽

독일 신학생들은 강의 들으면서 실제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프로세미나(Proseminar)를 진행한다. 책은 이 과정을 그대로 옮긴 기본 교과서 중 교회사 연구 방법론서로, 교회사란 신학과 역사의 영역 모두를 포괄하며 신학을 통합하는 핵심 분과라고 강조하면서 풍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직업 그리고 교회

정병길 | 성약 | 312쪽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지체로서 수행하는 참된 노동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신자야말로 참된 노동 가치를 구현할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노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도서 속의 그리스도

이근호 | 대장간 | 176쪽

전도서는 예루살렘 왕의 가르침으로, 허무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온통 허무를 뒤집어쓰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계신다. 우리는 그를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다니다 보니, 그분은 우리 곁을 지나쳐 간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허무!'라고 불러줄 때만 우리는 의미를 얻게 된다.



REVIEW

역설의 거장, 창조적 논리로 '기독교 진리'를 논하다

[기독교 고전 순례 8] 체스터턴의 <정통>

길버트 K.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1874~1936)은 영국의 언론인, 문학비평가, 사회비평가, 역사가, 희곡 작가, 변증가, 논쟁가, 시인, 수필가, 그리고 추리소설가로 활약했다. 20세기 최고 문필가 중 한 사람이다.

체스터턴은 열두 살에는 무신론자였고, 열여섯 살에는 철저한 불가지론자였다. 그는 프리랜서 예술문학 비평가로 활동한 적이 있고, 일간신문 등 여러 매체에 칼럼을 쓰기도 했다. 그는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다, 그 철학이 그리스도교 정통신앙임을 깨닫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가 쓴 <정통(Orthodoxy)>은 지난 1,500년간의 도서 가운데 '꼭 읽어

야 할 종교 관련 고전 10'으로 꼽힌 책이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책이지만, 이 책을 접한 독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체스터턴에 의하면, 이 책은 교회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붓 가는 대로 써 내려간 일종의 자전적인 글이다.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다이나믹한 구성과 마음을 낚아채는 역설적 진술들은 그의 장이다. 그는 "시인은 우주의 일부가 됴므로써 우주를 이해하려 하지만, 논리적인 과학자는 우주를 자신의 머릿 속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범상치 않은 통찰이 빛나는 대목도 눈에 띈다. 그는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패러다임 또는 중심원리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불

교는 구심적이지만 그리스도교는 원심적이다. 그리스도교는 원을 부수고 밖으로 나간다." 그에 의하면 불교 신자는 특별히 집중된 시선으로 내부를 향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도교 신자는 극도로 집중된 시선으로 외부로 노려보고 있다.

체스터턴에 의하면, '정통신앙'은 엄숙하고 지루하고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착각이다. 이제껏 '정통신앙'만큼 모험에 가득 차고 흥미진진한 것은 없었다. 정통신앙은 건전한 정신에 따르는 것이었고, 올바른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미치는 것보다 더 극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교는 가장 침체하여 있을 때조차 현대 사회 전체를 끌어오르게



G. K. 체스터턴
상상복스 | 317쪽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열광적이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지니는 최소한의 존재 의미는 이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최후통첩에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 사회에는 일종의 불가사의한 생명력이 숨어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초자연적인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정통>은 특별한 책이다. 체스터턴

은 대부분의 정통파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정통신앙을 마치 처음 대하듯 신선한 눈과 경탄하는 마음으로 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특유의 작가적 성실성과 섬세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들을 독특한 화법으로 깨고 있다.

체스터턴의 이런 견해는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을 쓴 J. R. R. 톨킨(Tolkien)에게, 또 체스터턴의 작품을 읽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C. S. 루이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서른 넷이라는 험기 왕성한 젊은 나이에 집필한 이 책은 그의 독창적 문체와 탁월한 사상을 드러내며 현대인에게 '정통신앙'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세종 요로정보감

“이제 멀리 외출해도 자신있어요”

“오염소태, 요실금 방광염, 전립선이상애~”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박스 120캡슐 (1일1회 2캡슐) ■195불

세종 송보감

“출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뺄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미용침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특 집

'봉사'가 이어준 인연, 더욱 섬기고 사랑하며 살 것

화제의 결혼 이후 안식년차 애틀랜타에서

신혼생활 하는 유은성, 김정화 부부



인터뷰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서로 존경을 써가며 상대방을 높이기에 바빴다. 가끔 눈이라도 마주치면 사랑스러운 미소를 주고 받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 감사하고 깊어졌다고 고백하는 두 사람, 바로 지난 8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화축을 밝힌 뒤, 1년 간 애틀랜타에서 안식년을 갖고 있는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와 연기자 김정화 부부를 만났다.

유은성 전도사는 임신 4개월 차인 아내의 입덧이 조금 줄었다며 생각보다 빨리 허락하신 태중의 아기로 인해 두 사람 모두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고 소중하다며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개가 쏘아지는' 신혼의 향기를 풍겨냈다.

지난 4월, 유은성, 김정화 커플의 결혼발표가 나자 '유은성'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예인으로 10년 넘게 활발한 활동을 해온 김정화의 '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하는 '전도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왜?'라

는 질문이 덧붙여졌다.

2000년 이승환 뮤직비디오 <그대가 그대를>을 통해 데뷔한 김정화 씨는 MBC <논스톱3>, SBS <태양 속으로>, KBS <백설공주>, MBC <1%의 어떤 것>, KBS <광개토대왕> 등 다양한 드라마와 뮤지컬 배우로,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밝고 건강한 이미지의 연예인이다.

유은성 전도사 역시 2000년 프로젝트 앨범 'YES'로 데뷔한 이후 1집 '소중한 너를 위해' 2집 트리니티 2006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회복시키소서', 3집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를 발표하며 청소년, 청년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집회와 다수의 기독교 방송, 라디오 등에서는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바쁘게 사역을 이어온 사역자다.

각자의 활동 영역이 너무 달라 공통분모가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기아대책'이다. 기아대책 홍보이사로 제 3세계 어려운 어린이들과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발벗고 나섰던 건강한 두 청년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부부의 연을 맺

게 된 것이다.

"선배나 동료들이 그래요, CCM 가수로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을 것이라고요(웃음). 다 정화 씨 덕분이죠"라고 결혼 발표 당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것에 대해 유은성 전도사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악성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정화 씨가 댓글은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면서,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달아놓고 했는데 화도 났지만 나중에는 그냥 즐기게 됐죠. 이만큼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사는 모습, 열심히 살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야죠"라고 했다.

김정화 씨는 "어쨌든 관심을 보여 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안 좋은 내용들도 있으니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히려 넓게 생각해 주셔...고맙죠. 처음에 교제할 때만 해도 결혼은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아버지

께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당시 믿음이 없으시던 아버지께서 의아해하시고 아끼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며칠 동안 마음이 안 좋으셨대요. 하지만 전도사님을 통해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고. 저희가 어디 집회 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변함 없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셨어요. 아버지의 신앙은 제 평생의 기도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 더욱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확신이 있어요"라고 했다.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 애틀랜타로 왔을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유은성 전도사가 사역하고 있는 노크로스한인교회 진세관 목사와의 오래된 인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애틀랜타가 그나마 전원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조용하고 안전한 대도시였기 때문이다. 애틀랜타로 가기로 확정하고 나서야 애틀랜타에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사는 줄 알게 됐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2000년에 데뷔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만큼 '결혼'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평안과 쉼을 얻고 싶었다고 한다.

유 전도사는 "한국에서는 어디 가려고 하면 정화 씨는 모자를 쓰고 다녀야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다녀도 알아보시는 분도 별로 없으셔서 너무 좋네요. 집회 때문에 뉴욕이나 엘에이, 텍사스도 다녀왔는데 정화 씨는 여기가 좋다고 오길 잘했다고 해요. 한 달에 2주는 청년들이 많은 노크로스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나머지 2주는 집회를 다니는데 청년들이 많아서 참 좋고, 가는 곳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하죠"라며 현재의 사역과 삶을 풀어 놨다.

연애시절 만나면 꼭 말씀묵상을 빼먹지 않았다는 이들은 한 번은 4시간이 넘도록 삶과 신앙을 나누기도 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관점과 비전을 갖고 있어 놀라기도 하다가, 또 다른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서로에게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매일 마주 앉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고 한다.

기아대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앞으로의 봉사와 섬김에 대한 계획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기아대책에 대한 애정과 빛진 마음이 크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빵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는 사역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봉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혼자 가던 봉사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유은성, 김정화 부부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기아대책과 함께 미국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모'라 불리게 된 '연예인' 김정화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했다.

"글쎄요.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이지 사모와 결혼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정화 씨는 좋은 작품을 만나면 언제나 출연을 하려고 해요. 10년 넘게 일한 소속사, 매니저와 함께 쉬면서 작품을 고르고 있어요. 따뜻한 가족애, 휴머니즘,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이 사회를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라는 남편의 말에 아내 역시 '미소'로 동의했다.

박현희 기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는 유은성, 김정화 부부.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캐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농협 홍삼 한삼인

고객 감사 세일

2병(100g*2) 구매시 + 1병(100g) 증정

1병(240g) 구매시 + (100%홍삼즙)활력액 1box(30포-1달치) 증정

SALE 2+1
농축액 100g

SALE 1+ 활력액
농축액 240g

판매순위 1위인 홍삼 100% 순액. 72시간 이상 저온 추출시스템으로, 항당뇨작용, 체력증진, 위장기능강화, 항암작용에도 강력한 효과.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LA 지역: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323.737.8888 (올림픽+하바드 - 서독안경빌딩)

플러턴지역: 170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아리랑마켓입구)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교회 기도실

213) 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투입정비

76

오일사용

- \$23.99 *tax 6cyl.
- \$18.99 *tax 4cyl.
-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몬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울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기쁜성탄을 축하합니다.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헤밀리자동차
FAMILY AUTO SALES
323-737-5900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www.myopenbank.com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뱅크의 커뮤니티 사랑법! 청지기 프로그램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표일자: 2014년 2월 28일 (금)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자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CEO MIN KIM

Wilshire Office
1000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7
Telephone (213) 892-9999

Fashion District Office
747 E. 10th Street, Suite 310,
Los Angeles, CA 90021
Telephone (213) 892-9999

Gardena Office
15435 S. Western Ave., Suite 100-D,
Gardena, CA 90249
Telephone (310) 354-6000

Aroma Office
3680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 90010
Telephone (213) 401-3500

Buena Park Office
(Opening Soon)
5141 Beach Blvd., Unit E&F
Buena Park, CA 90621

